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1

“우리도 함께 뛰다”

시민사랑·가족사랑 실고 바람의 질주

■ 광주도시철도공사

“시민사랑 가족사랑 실고 바람처럼 달려가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3·1절 마라톤에 출사표를 던졌다. 올해로 창립 9년째를 맞고 있는 공사는 매해 3·1절 마라톤에 참가해 직원들 간 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공사의 존재감을 알렸다. 특히 이번 마라톤 참가자들은 근무지와 근무시간이 서로 달라 함께 모일 기회는 적지만, 소그룹별로 월드컵 경기장 일대를 달리며 체력을 다져와 ‘좋은 기록’도 욕심내고 있다. 사내 전산망에 동호회 게시판을 마련하고 신입사원과 선배직원 간의 멘토링 훈련 등을 통해 선후배 간 끈끈한 정도 높였다.

창립 9년... 문화 지하철 표방

모두 마음으로 함께 뛸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상당수 직원이 부서를 바꿨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부서 직원들 간 ‘손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에서도 시민과 함께 달리는 문화지하철을 목표로 힘차게 달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치한다”며 “고객들을 위해 도시철도는 할 수 없기에 전 직원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사원들 소그룹별 체력 단련

발과 마음’을 맞추는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문화지하철 사업과, 특화된 시민 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큰 찬사를 받아온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올해 미래대응 다기능 조직으로서의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다각적인 수익 확충과 마케팅 시책 강화 등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공격 경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사내 커플 부부이면서 올해 6살된 아들과 대회에 참가하는 김경재(경영관리팀) 과장과 배숙정(역무운영팀)씨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도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가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고 참가이유를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바이애슬론 효녀 문지희

크로스컨트리서 銀 2개 추가

동계체전 이상화 2관왕

바이애슬론의 문지희(23·진도군청)가 제 92회 전국동계체전에 참가중인 전남 선수단에 ‘효녀’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문지희는 동계체전 셋째날인 17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 일반부 프리 10km와 복합 경기에 출전, 2개의 은메달을 따냈다.

앞서 15일과 16일 바이애슬론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낸 문지희는 크로스컨트리 여자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에도 선전을 펼치, 지난 동계아시아간계 금메달리스트 이재원(하이원·강원)에 이어 은메달 2개를 보냈다.

대회 3일째 금 2, 은 2의 성적. 문지희는 바이애슬론 종목의 국가대표 남자 에이스인 다소 주출거린 사이, 제 몫을 다해 전남을 17일 현재 종합성적 8위(금 3·은 2·동 1)로 끌어올렸다.

전남스키협회 정은순 코치는 “문지희 선수가 워낙 스키실력이 뛰어나, 올해 처음 동

전한 크로스컨트리에서도 메달을 기대했다”며 “이 경기를 나가기 위해 올해 연습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지희는 대회 마지막날인 18일에도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 일반부 계주 15km에 송은영(동신대), 조인희(보성군청)와 함께 출전, 메달권에 도전한다.

한편, 국내 빙상 스타들은 이번 대회에서 여전한 실력을 뽐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2관왕이었다가 국가대표 선발전 째짜미 파문에 휘둘러 징계를 받았던 이정은(22·단국대·충남)는 복귀전을 3관왕으로 마무리했다. 이정은은 지난 13일과 14일 500m, 1500m를 석권한데 이어 16일 강원도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대학부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4분7초570을 기록해 우승했다.

또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화(22·한국체대)는 16일 여자 대학부 500m에 이어 17일 여자 대학부 1000m에서 1분19초46으로 끝내 우승해 2관왕에 올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이청용 맹활약... 불턴 FA컵 16강행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청용(23)이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 불턴 원더러스가 잉글랜드 FA컵 16강에 올랐다.

불턴은 17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워건의 DW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2011 잉글랜드 FA컵 4라운드 워건 애슬레틱과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지난달 30일 워건과의 홈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던 불턴은 16강에 진출, 20일 풀럼과 원정 경기로 16강전을 치른다.

0-0으로 전반을 마친 불턴은 후반 21분 마크 데이비스의 패스를 이어받은 이반 클라스크치가 11m 거리에서 왼발 중거리포를 작렬해 결승골을 뽑았다.

선발로 출전한 이청용은 후반 45분 왼발슛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워건의 운투라스 출신 미드필더인 헨드리 토머스의 몸에 맞아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로써 올해 FA컵에서는 14개 팀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남은 두 자리는 19일 첼

시와 에버턴, 20일 맨체스터시티와 노츠 카운티의 경기 승자가 차지하게 된다. /*연합뉴스

이영표 PK 실축

축구대표팀에서 은퇴한 베테랑 수비수 이영표(34·일릴)가 사우디아라비아 컵대회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팀 승리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영표는 1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의 킹 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라운 프린스컵 8강 아흐리와의 홈 경기에서 2-2로 맞선 후반 21분 교체 투입됐다. 양 팀은 2-2로 전·후반 90분을 마치고서 연장까지 갔으나 결국 승부차기를 벌였다.

이영표는 두 번째 키커로 나섰다. 하지만 이영표가 오른발로 찬 공은 골대 위로 날아갔다. 다행히 골키퍼 하산 알 오타이비의 선방으로 알 힐랄이 4-3으로 이기고 4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日까지 진출한 10년된 전국구 동호회

■ 화순 마라톤 클럽

“많은 선수들 틈에서 함께 호흡하며 뛰는 것 자체가 가슴 뛰는 경험이지요. 어서 대회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순마라톤클럽 회원들이 ‘제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출전을 앞두고 열의에 찬 기운을 내뿜고 있다.

회원들은 요즘 화순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내 육상트랙을 돌며 마무리 훈련에

3·1절 대회는 어울림 마당

집중하고 있다. 뚝 떨어진 기온 탓에 움츠릴만도 하지만 달리기 위해서 모인 그들의 상기된 표정 앞에서 추위조차 무색하다.

지난 2002년 창립해 10년째 화순지역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화순 마라톤클럽’은 3·1절대회의 이 외에도 서울, 춘천 등지의 유명대회와 매년 일본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에서 열리는 대회까지 참가하는 등 진정한 ‘마라톤 매니아’들로 구성된 동호회다.

지난해 마라톤에 입문해 생애 첫 대회에 출전하는 임근식(39)씨는 하프코스에도 도전한다.



화순마라톤클럽 회원들이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육상트랙에서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화순에서 개인택시사업을 하는 중 운동 부족을 느껴 마라톤을 시작한 임씨는 “마라톤으로 인해 체력은 물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 30대의 마지막인 올해에 마음을 다잡고자 출전한다”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울트라마라톤에도 참가

2001년 마라톤에 입문해 그동안 풀코스 30여회를 완주하고도 성에 차지 않아 광주와 제주, 부산 등에서 열리는 울트라 마

라톤에 출전하고 있는 이준재(49)씨는 “대회에 나갈 때마다 함께 뛰는 동료들을 위해 음악을 틀 라디오를 배낭 속에 넣고 뛰다”며 “이번 3·1절 대회에도 참가선수 모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코레일 광주본부 내 ‘시설 마라톤클럽’의 회장까지 역임하고 현재는 클럽 내에서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임근영(55)씨도 출전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해마다 전국에서 열리는 30여 회의 대회를 모두 참가한다는 그는 “결승선

을 넘어설 때의 그 짜릿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신묘한 첫 출전하는 3·1절대회에서도 그 기분을 만끽하고 싶다”고 말했다.

화순마라톤클럽을 5대째 이끌고 있는 배상돈(56) 회장은 “흔히들 마라톤을 자기의 싸움, 고독한 운동이라 하지만 회원들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같이 땀 흘리며 어울릴 수 있는 운동이라 칭하고 싶다”며 “겨우내 열심히 훈련한 만큼 회원들 모두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필드의 미녀들

KLPGA 홍보모델 선정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17일 한국 여자골프의 위상을 드높일 홍보 모델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KLPGA 홍보 모델로 활동하게 될 선수는 서희경(24·하이트)과 유소연(20·하이마트), 김하늘(22), 안신애(20·이상 비씨카드), 윤채영(23·LIG골프), 이보미(22·하이마트), 임지나(23·FnC 코오롱), 이혜인(25·푸마), 최혜웅(20·LIG골프), 홍란(24·MU 스포츠) 등 10명.

이들은 지난해 상금 랭킹 50위 이내 선수 중 언론사와 스폰서 관계자들의 투표로 뽑혔다. KLPGA 홍보모델 선정은 올해가 세 번째.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김인경 LPGA 개막전 첫날 버디쇼

9언더파... 통산 네번째 우승 발판

김인경(23·하나금융)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 첫날부터 필름 날았다.

LPGA 투어에서 3승을 올린 김인경은 17일(이하 한국시간) 태국 춘부리의 시암 골프장(파72·6477야드)에서 열린 혼다 LPGA 타이틀랜드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9개를 쏟아내는 맹타를 휘둘러 9언더파와 63타를 적어냈다. 김인경의 이날 스코어는 2007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2010년 미야자토 아이(일본)가 작성한 코스레코드를 타이 기록이다. 오후 5시까지 일부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김인경은 2위 그룹과의 격차를 벌리며 시즌 첫 우승이자 통산 네 번째 우승을 향한 발판을 놓았다.

김인경은 2008년 톱스 드레스 캘린지, 2009년 스테이트 캄 클래식, 2010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션에서 우승하는 등 매년 1승씩을 쌓는 꾸준한 성적을 보여왔다.

김인경은 1번홀(파5)부터 버디를 잡았고 3번홀(파4)과 4번홀(파3)에서도 1타씩을 줄였다. 김인경은 5번홀(파4)에서 티샷을 페어웨이 왼쪽 벙커에 빠뜨려 두 번째 샷을 페어웨이로 빼내야 했지만, 워터로 친 세 번째 샷을 홀 1.5m에 떨어뜨려 파로 막았다.

위기를 넘긴 김인경은 이후 버디 6개를 보태며 단숨에 선두로 치고 나갔다.

김인경은 “개막전이라 긴장되기도 했지만, 첫 조로 출발하게 돼 마음이 편했다”며 “티샷이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 5번홀에서 파 세이브를 한 뒤 자신감이 생겨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